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胎動과 運用(하)

신 서 철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서기관

## 2. 추진현황

### 다. 제1차 전력산업기반조성 계획(2003~2005년) 수립

#### (1) 수립경위

기금은 법률에 의거 설치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원을 조성하고 운용해야 하며 기금의 설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운용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조개편 이후 공익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한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47조에 매 3년 단위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을 근거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력산업분야 공익사업이 정부로 이관된 이후 첫 번째 수립하는 전력산업 중기 정책방향임을 감안,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수립절차 및 수립방안을 확정(2001.10)하고 계획 수립을 착수하였다.

우선 산업자원부 주관 하에 한전 전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계획수립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및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반 조성계획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기반조성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 사업추진 체계 및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력정책심의회 심의(2002.7.4)를 거쳐 그 심의결과를 수렴한 최종안을 확정(2002.8.21)하였다.

제1차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기본목표는 구조개편 이후에도 민간 전기사업자에 대한 신규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수요관리사업 추진으로 전기소비구조의 합리화 유도 및 최대 전력수요를 감축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유지하며, 정부와 민간 간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여 2009년 이후 경쟁시장체제가 완전히 구축될 때까지 시장전환 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되, 경쟁도입과 효율성 제고라는 구조개편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분야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만 개입하여 장기적으로는 기금부담률을 축소하며, 전력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투자 확대에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조성사업 추진방향은 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의무적 지원사업인 보편적 전력공급지원 및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은 기본적 생활여건 보장 차원에서 현상유지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타에너지 지원사업 등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 재정립과 시장원칙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사업은 점진

적으로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전력수급 안정과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전력수요관리사업, 전원개발지원사업, 전력연구개발사업 및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의 전문성·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기금 전달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주기적인 사업평가 및 피드백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기금조성규모 및 투자 계획

3년간의 재원조성은 기금부담률을 1000분의 45.91을 유지하여 규모는 총 3조 1,176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기금부담률을 일정하게 적용한 배경은 구조개편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 예측하지 못한 사업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2차 계획기간(2006~2008년)부터는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금 부담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

(가) 기금 조성규모 추이(2003년~2005년)

(표 7 참조)

(나) 투자계획(표 8 참조)

〈표 7〉 기금 조성규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예상 전기판매 수입 <sup>(1)</sup>	212,374	220,757	228,906	662,037
기금부담률(%)	4.591	4.591	4.591	-
부담금 수입	9,768	10,153	10,528	
전년도 이월금	1,137	817	544	-
예상 기금조성규모 <sup>(2)</sup>	10,905	10,970	11,072	32,947

(1) 예상 전기판매수입은 한전의 장기 재무 전망치임

(2) 예상 기금조성규모 = (예상 전기판매수입 × 0.04591) × 1.0018 + 전년도 이월금

단, 연체기산금은 예상 전기판매수입의 0.18%로 산정

〈표 8〉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전력수요관리사업	1,433	1,669	1,940	5,042
전력산업연구 개발사업	1,161	1,431	1,699	4,291
전력산업인프라구축 지원사업	409	536	678	1,623
보편적 전력공급 지원사업	866	848	825	2,53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95	1,717	1,310	4,922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810	830	850	2,490
전원개발지원사업	600	800	1,000	2,400
타에너지지원사업	2,836	2,508	2,264	7,608
기금관리비 및 사업운영비	78	87	96	261
합 계	10,088	10,426	10,662	31,176

(3) 사업별 추진계획

전력수요관리사업은 구조개편의 과도기인 점을 감안, 직접부하제어제도 등 전력수급 안정 효과가 큰 부하관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효율 향상사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건전한 전기소비 구조 유도 등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원자력발전소 2.5기에 해당하는 255만 2000kW의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2002년 대비 232% 증가된 1334GWh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가)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은 사업별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공익성, 시급성, 미래지향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체계를 재편하였다.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한 「전력공급안정화사업」과 경쟁시장 여건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한 「전력시장경쟁력강화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환경과 조화된 전력산업 구축을 위한 「환경친화전력기술개발사업」과 미래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혁신전력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전력산업 핵심기술 조기 확보 및 전력

산업이 수출 촉진을 위해 「차세대화력발전의 핵심기술 개발」 과 「중·저준위 방사선편기물 유리화 원형플랜트 기술」 등의 전략적 기술을 선택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나)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은 경쟁시장 기반조성 및 전력산업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새로운 전력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기능별로 기초, 산업, 고급, 전문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선진 전력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수출 타당성 조사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며, 국내 전력기술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대학, 연구소 등 전력분야에 공통으로 활용가능한 연구시험설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 전원공급지원사업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원개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용자 지원하되, 경쟁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정책성 전원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전원구성비를 유지하고 2005년까지 총 12기(총용량 660만kW)의 발전소 건설을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국가차원의 전원개발 입지 확보 등의 공적인 부문과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적인 부문 간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라) 타에너지지원사업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체에너지산업을 육성하며 국내 무연탄발전은 지원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기금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LNG 발전지원은 LNG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투자계획에 미반영하되 필요시 예비비로 지원하고 열병합발전 지원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열요금 현실화를 통해 기금지원을 축소하고 향후 시장원리

에 의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 도서·벽지 전력공급지원사업은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한전 인수·운영을 완료할 예정이다.

(바)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은 전기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해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점검 핵심장비의 신규도입을 확대 지원하여 전기안전점검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On-Line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며 전기안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TV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3.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 가. 기금운용계획 수립 경위

2003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은 제1차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중기 정책방향과 목적에 충실하고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에 근거를 두고 수립하였다. 2001년과 2002년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사업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였다.

작년 기금운영계획이 지난 기금운용계획과 차별되는 점은 일반예산과 동일하게 기획예산처 심의·조정을 거쳐 국회의 심의로 확정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2003년 시행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의결(2002.7.4)을 거쳐 2003년 시행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기획예산처 협의·조정과 2차에 걸친 기금운용심의회(2002.7.9, 8.3)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로 정부안을 확정(2002.10.2)하였다.

확정된 정부안에 대하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개별위원회) 심의·의결(2002.10.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의결 및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2002.11.8)로 최종 확정되었다.

#### 나. 기금편성 기본방향 및 주요 역점사업

2003년도 기금편성 기본방향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국회심사제 도입 후 처음 수립하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기금사용 목적에 보다 충실하고 사업성 경비로서 단일항으로 운영되어 왔던 전력개발 항을 6개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기금운영비를 기금관리비와 사업운영비로 분리하는 등 기금예산과목 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기금의 수입은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연체에 의한 가산금 및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도 기금 자체수입은 1조 435억원으로 전년대비 1.7%가 증가되었다.

주요 역점사업으로 전력수요관리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최대전력수요 감축 및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를 위하여 2002년 대비 16.6%가 증가한 11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부하 증가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효과가 큰 직접부하제어량을 2002년 49만kW에서 2003년 100만kW로 확대하고 피크절감효과가 우수한 하계휴가보수요금제 및 자율절전 요금제 등 부하관리 요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구조개편과정에서 위축된 R&D 투자를 정상화하여 미래 전력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2002년 777억원에서 905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 세부내용으로 시장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전력시장 조기정착을 위한 기술수요에 대비하여 전력시장운영기술 및 도·소매 경쟁시장 구축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273억

원을 지원하고 구조개편 과도기에 발생가능한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한 전력공급 능력확충을 위한 전력공급안정화기술개발에 384억원을 지원하며, 환경오염방지기술 등 환경친화적 전력기술개발 및 미래 혁신적 전력기술개발과 대학의 기초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48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력분야 인프라 구축으로 시장경쟁체제로의 원활한 진입 및 전력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74억원을 지원한다. 우수인력의 전력분야 지원을 유도하고 미래전력산업을 이끌어갈 인력양성에 120억원, 해외 선진기술정보 및 첨단기술의 국내이전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강화한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및 대국민 홍보 강화로 전기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목표 하에 전기설비안전점검 업무의 효율 증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전기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해 사업비를 2002년 25억원에서 2003년 31억원으로 증액 지원토록 하였다.

전력공급지원사업은 도서, 벽지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발전기를 한전이 추가 인수(34개 도서 → 63개 도서)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2002년 538억원에서 2003년 733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지원하던 농어촌 전화사업을 2003년 기금으로 일원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2002년 30호 이상 도서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을 2003년에는 20호 이상까지 확대 추진하도록 하였다.

2003년 기금운용 규모는 1조 1,572억원으로 전력수요관리사업,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 전력공익사업 등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영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타에너지지원사업 및 전력기반조성용자사업은 감소하였다. 특히 계획상 여유자금인 2002년 1,137억원

에서 2003년 2,4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사유는 수입측면에서 2003년도 예상전기판매량 증가 등으로 법정부담금, 가산금 및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14.7%로 대폭 증가(1,335억원)한데 반하여 지출측면에서는 전년대비 3.5%로 소폭 증가(312억원)한데 기인한 것으로 여유자금은 구조개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일정의 예비비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일정규모 이상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기금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4. 앞으로의 과제

##### 가. 전담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은 국내 전력산업 발전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원활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동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전담기관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전담기관으로 현재 한전 전력연구원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동 전담조직이 기금의 최대 수혜자인 한전 소속으로 되어 있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담기관 독립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와 같이 국회와 외부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 및 기금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나 인사관리가 소속기관인 한전의 인사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1차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사

업의 전문성·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2003년에는 전담기관을 별도 법인화하여 전담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인력의 적기 확보로 사업수행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나.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범위와 역할 정립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은 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과 이행과정상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서 시장경쟁체제에서 좌초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면서 경쟁도입이라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근본취지와 목표를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계획이 적정성이나 기금의 조성 정도 및 운용방식에 따라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구조개편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킬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재원부담의 주체인 전기소비가 사업추진의 당위성에 대하여 납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순수한 공익보다는 민원성이 개입된 사업들까지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하여 기금이 지원되고 있는 점도 일부 존재한다. 이것은 구조개편의 초기에 이해당사자 및 시장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여 구조개편을 연착륙 한다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금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사적인 부문과 공적인 부문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관련법의 제·개정, 지원수준 조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민원성 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대책마련기간 또는 시장의 성숙 정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반기금을 부담하는 전기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